

2.

2017학년도

인문계열 2회차 해설

[2회차 공통문항]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발췌)

제시문 <가>는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불합리한 모순에 대하여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GDP 속에는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모두 부기 상 긍정적인 것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면 알콜, 마약, 외설물 등과 대기가 나빠져서 그 반대급부로 성장하게 되는 감기약, 마스크, 전구, 안경 등의 지출 증가도 그것이 시장의 상품으로 소비되는 한 GDP성장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GDP가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진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제시문 <나> : 조승헌, 『99%가 행복해지는 정치』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적 여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다르게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 서술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적 가치관인데, 왜냐하면 외부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 : 「한겨레21」 (2016, 5월 제 1110호에서 발췌)

제시문 <다>는 '행복 없는 사회, 경제'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서술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한국은 적지 않은 GDP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에 있어서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58위이며, UN보고서 기준 29위(그림 1)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림 2)가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림 2)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삶에 있어서 특히 불행하게 느끼는 부분은 공동체적 결합과 소득, 삶의 만족도이다.

[2회차 공통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출제 의도

행복이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목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는 그렇게 증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봄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 할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는 것이 출제의 의도이다.

논제의 구성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왜 <다>(그림 1), [그림 2] 포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00±100자)

위 문항은 첫째, 제시문 <가>와 <나>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며, 둘째, 제시문 <다>에 있는 내용과 그림을 분석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며, 마지막으로 제시된 조건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여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즉 창의적인 추론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2회차 공통문항] 채점기준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제시문 <가>와 <나>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가

둘째, 제시문 <다>에 나타난 현상을 그림을 포함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셋째, 제시문 <다>의 현상을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넷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답안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제시문 <가>의 요약

첫째,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그 내용면에서 숫자에 의한 불합리성을 포함한다.

셋째, GDP는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그것이 시장의 상품으로 소비되는 한 모두 포함한다.

② 제시문 <나>의 요약

첫째,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둘째, 외부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③ 제시문 <다>에서 제시되는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높은 GDP를 갖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행복도를 보인다.

둘째, 특히 낮은 국민 행복도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는 공동체적 삶과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이다.

④ 제시문 <가>와 <>의 논지를 활동하여 제시문 <다>의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GDP대비 국민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제시문 <가>가 말하듯이 GDP의 허구성이 일조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결함,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삶의 만족도 등에서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행복의 내적 요인인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공동체 의식의 부족 -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과 어울림이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임

삶의 만족도 - 성공 지향적 교육이 아닌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육 환경과 관련됨

[2회차 공통문항] 예시답안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각기 GDP라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불합리한 모순과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말한다. 먼저 <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GDP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민의 행복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GDP 속에는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알콜, 마약, 외설물 등과 같이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것 또한 시장의 상품으로 표시될 수 있는 한에서 모두 포함된다. 이것은 곧 GDP가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행복이란 직업, 소득 등과 같은 외부여건에 대하여 내적 가치관이 반응하여 발현되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적 가치관인데, 왜냐하면 외부 여건이 같아도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양한 이유는 이 내적 가치관이 필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건강, 성격 등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후천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것에 견주어 자신의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그림 포함)는 적지 않은 GDP(세계 11위)와 1인당 국민 소득(28위)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그림 2)가 보여주듯이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는 현저히 낮은 공동체적 결합과 소득의 불평등 및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계된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GDP에 비례해서 국민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제시문 <가>가 설명하고 있는 GDP의 허구성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GDP란 결코 삶의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림 1)에서처럼 높은 GDP와 그에 상응하는 높은 행복도를 보여주는 유럽의 나라들도 있다. 그것은 그들 국가의 국민계정 속에는 부정적 요소가 가능한 적게 포함되리라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특히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공동체적 삶과 소득 및 삶의 만족도 등에서 현저히 낮은 행복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의 부족하다는 것은 가치관의 구성요인 중 한국의 문화 환경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 환경이 인격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지향적 교육이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사회 환경이 상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회차 계열문항]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서경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혁명가의 생애」 (한겨레 , 2007.1.5.에서 발췌)

제시문 <가>는 재일 디아스포라 논객이자 에세이스트인 서경식 교수의 칼럼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러시아의 혁명가인 게르첸과 그 아들 알렉산드르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 간 단절문제를 재일 조선인 세대 사이의 단절과 겹쳐서 사유한다. 혁명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친 게르첸 세대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들 알렉산드르는 혁명 같은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세대에 해당한다. 서경식의 글은 이런 세대론적, 역사적 차이를 재일 조선인이 마주한 세대론적 갈등과 연결시킨다. '흐르는 잔혹성'으로 표현되는 세대론적 차이와 각자 세대가 마주한 역사적 체험의 차이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 않은 일종의 숙명적인 골레이자 문화사적 조건일 것이다.

제시문 <나> : 토마스 만, 「토니오 크뢰거」 (안삼환 역, 토니오 크뢰거, 민음사, 1998 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대표적인 작가 토마스 만의 자전적 예술가 소설인 「토니오 크뢰거」를 발췌한 후에 재구성한 지문이다. <나>에는 소설의 주인공 토니오와 친구 한스 사이의 단절과 차이의 감각이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문학작품 읽기를 좋아하는 토니오와는 달리 친구 한스는 실러로 대변되는 문학에 관심이 없으며 말[馬]에 대한 그림보기를 좋아한다. 토니오가 아무리 저명하고 탁월한 작가가 되더라도,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는 한스에게는 토니오의 명성이 무관심의 대상이다. 서로 취향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토니오가 독백한바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다는구나”는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토니오와 한스 사이에 존재하는 관심과 취향의 차이는 제시문 <가>와는 달리 역사적, 세대론적 문맥이 소거된 동년배 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의 차이에 가깝다.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하고, 나와 타자 사이의 다름에 대해 사유하는 과정은 한 사람이 온전한 주체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통과제의(通過祭儀)라고 하겠다.

제시문 <다> : 강영안, 「레비나스의 철학」 (시간과 타자 , 문예출판사, 1996 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다>는 '타자의 철학'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을 해설한 강영안 교수의 저서 『시간과 타자』에 수록된 글 「레비나스의 철학」을 발췌·재구성한 글이다. <다>에서는 '타자'에 관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타자)은 내 삶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체와 타자 사이의 존재하는 차이를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타자를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타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타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할 수 있을 때, 각자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타자의 존재는, 주체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와 지평을 열어주는 소중한 등불이다.

[2회차 계열문항] 출제의도와 논제의 구성

출제 의도

- 인문계열 2회차 논술문제는 타인과의 소통, 차이와 단절을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나와 다른 타자의 생각, 가치관, 성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세우고 타자를 환대하는가를 지문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문제이다.
-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동년배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의견의 차이와 역사적 상황의 차이, 성향과 기질의 차이를 어떻게 서로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검증하고 파악하는 것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논제의 구성

2회차 인문계열 논술의 주제는 '타자와 주체', '소통과 단절'이다. 주체의 성숙, 곧 진정한 주체가 된다는 것은 타자와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 타자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사유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한 주체는 자신의 고유한 개별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체의 성숙과정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필수적인 통과제의라고 할 수 있다. 타자의 세계관, 역사의식, 취향, 기질과 자신의 그것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한 주체는 그만의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 진정한 주체로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한 주체에게 있어서, 자기와 다른 타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보는 과정은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탈피하여 세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주체의 성숙과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타자와의 차이를 어떻게 자기 인식의 성숙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쓰기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논제는 아래와 같다.

<가>와 <나>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고, <다>의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참조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2회차 계열문항] 채점기준

답안 구성요소

■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첫째, 답안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 2)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3)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이 논제에 대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가>와 <나>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 2) <다>에 드러난 '타자'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을 도출하는 것
- 3) 2)에서 수행된 내용을 활용하여 <가>에 등장하는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서술하는 것

■ 이 논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답안 구성 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논리적이며 명료한 언어로 서술해야 한다.

▲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파악

1) 공통점

- 서로 간의 차이와 단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관심의 다양성과 상대성이 드러나 있다.
- 어떤 사람(세대)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타자에게는 대단히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표출되어 있다.

2) 차이점

- <가>에 드러난 차이는 역사적이며 세대론적 문맥이 개입되어 있다. 이에 비해 <나>에 드러난 차이는 개인적인 취향과 기질, 관심의 문제에서 연유한다. <나>에는 역사적인 문맥이 소거되어 있다.
- <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지는 세대론적 문제이나, <나>는 동년배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가>는 차이를 발생한 원인과 그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현상에 대한 수동적인 추인과 묘사에 가깝다.

▲ <다>에서 제시된 '타자'에 관한 두 가지 논리 파악

1)

-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 상대방(타자)은 내 삶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주체와 타자 사이의 존재하는 차이를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타자를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 타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체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서보아야 한다.
-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 타자는, 주체에게 새로운 존재 의미와 지평을 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 <다>의 논리를 활용하여 <가>에 나타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함

1) <다>의 첫 번째 논지를 활용한 답 내용

- 아버지와 아들 세대는 서로의 차이점과 각자가 처해 있는 다른 역사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상대방 세대가 내 삶의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한 관계라는 생각으로 타자(상대방)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2) <다>의 두 번째 논지를 활용한 답변 내용

-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의 입장에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열어주는 소중한 타자가 되어야 한다.
 -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

[2회차 계열문항] 예시답안

예시 답안

이 논제는 타인과의 소통, 차이와 단절을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혁명가이자 망명가인 게르첸 세대와 아들 세대 사이의 단절이 화두다. 모든 인생을 걸고 혁명에 투신한 게르첸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역사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들은 혁명에 어떤 관심도 없다.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현저히 다른 것이다. 이 점은 제시문 나)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문학작품 읽기를 좋아하는 토니오와는 달리 친구 한스는 실러로 대변되는 문학에 관심이 없으며 말[馬]에 대한 그림보기를 좋아한다. 토니오가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되더라도,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는 한스에게는 토니오의 명성이 무관심의 대상이다. 서로 취향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토니오가 독백한바 “난 잠이 오는데, 넌 춤을 춰야겠다는구나”는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두 예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차이에는 역사적 배경과 세대론적 문맥이 개입되어 있다. 한 개인의 취향보다는 특정한 세대가 마주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그 차이를 생성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 드러난 차이는 동년배(친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 차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롯되는 관심과 기질,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 문맥이 소거되어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게 포섭될 수 없는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타자를 환대하며 타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문 가)의 아들과 아버지 세대의 관계에 적용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흔쾌하게 인정하면서, 그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즉 상대방은 내 삶의 관점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의 입장을 서서,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을 마음 깊이 환대해야 한다. 상대방, 곧 타자의 존재와의 만남에 의해 각자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타자의 존재, 즉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